

포교사업의 수호자
예수아기의 성녀데레사
동정대축일

제1 독서 : 이 사 66, 10-14C
제2 독서 : 1 고린 7, 25-35
복 음 : 마 태 18, 1-5

순정 이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 이 어린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다” (마태오 18, 3-4).

전교는 가장 큰 사랑의 실천

우리 본당 신자 한 분은 “나는 0명 전교를 하였다. 그리고 올해의 목표는 0명이다”라고 예비자들을 인도하고 영세를 시키게 된 것을 자랑하십니다. 때로는 준비가 되지 않은 예비자들을 영세받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여 본당 신부인 저를 당혹케 하지만 그분의 모습이 싫지 않고 오히려 존경이 가는 것은 전교에 대한 열의가 너무도 고맙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전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속사업을 완수하신 다음, 자신이 성부의 파견을 받으셨음과 같이 사도들을 파견하시며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마태오 16, 15).

복음이란 기쁜 소식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 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값지고 고귀한 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만일 내가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1고린 9, 16)라고 까지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신자 아닌 사람을 영세시켜 신자 하나 늘린다는 것을 떠나서, 서로가 기쁨을 줄 수 있는 신앙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

니다. 더 자세히 보면 이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품으로 오고 있는 지를 알게 됩니다. 그 분들 자신은 부족한 신앙인이라고 고백하겠지만 분명 그들은 하나의 작은 예수님이요 복음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사는 자리에서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전교의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전교란 결코 입으로만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오가는 길거리에서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소리치는 사람, 길거리에서 바쁜 일로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을 붙들고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설득하는 사람이 전교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쟁이는 될지 몰라도 예수님의 모습은 아닌 것입

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전교입니다. 내가 신자라는 것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며, 「천주교 신자는 그래도 다르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교는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웃에게 참 생명을 전해주고 구원을 전해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 놓으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10월 전교의 달을 맞으며 전교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반성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여! 나를 전교의 도구로 써주소서.

(성태수 신부 덕진천주교회)

“
우리 삶에
가장 값지고
고귀한 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



무엇을 줄까?



홍로사수녀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을 대하게 되면, 은연중에 교회를 다니라고 권한다. 내가 하는 사도직은 특이하다고 할까 하여튼 여러부류의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다. 어린이에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수도자, 성직자 하물며 타종교 신자뿐 아니라 믿지 않은 이들, 즉 우리 서원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여러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다보면 어떤 때는 마음 상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성서, 아니면 무엇을, 무엇을 주어야 그들이 주님을 찾을까?

따뜻한 물한잔, 맛있는 음식.....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은 나의 삶의 태도였다.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을 통해 그분들이 하느님을 찾고 믿게 되는 것임을 알았던 것이다. 바오로사도가 그의 서간에서 간곡히 하시는 말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은 각각 다릅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라면 자기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써야 하고 그것이 봉사하는 일이라면 봉사하는 데 써야 하고 가르치는 일이라면 가르치는데 써야 하고 격려하는 일

이라면 격려하는 데 써야 합니다. 회상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지도하는 사람은 열정을 다해서 해야 하며 자선을 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로마 12, 6-8)라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순교자들의 전기를 보더라도 그분들이 무엇을 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운 삶을 아간 것이다. 어려움 속에서 오로지 주님께 의탁하고 기뻐주어진 삶을 살아간 것이다. 그 사람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삶을 보면서 무엇인가 느낌을 받는 사람은 하느님을 고 믿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 오늘날 현대 물질문명의 삶을 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느님을 전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어야 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치에서 기쁘게 받아들이고 산다면 옷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 하느님을 찾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앞으로 맞이하게 될 성체대회 표어가 말해주듯이 그리스도와 한몸 한마음되어' 그의 삶을 모방해서 살아간다면 안에는 기쁨이 짙고 이웃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영광이 되길 바란다.

(성바오로 팔 수도회)

축/제44차 세계성체대회

그리스도 유래의 평화

자비로우신 아버지,
세계성체대회를 맞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의 성체와 한몸이 되어
그 생명의 힘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소서
또한 성찬의 신비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나눔으로써

주님 안에 하나되고
주님의 평화를
온 세상에 전하는 도구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평화의 모후여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한국 순교 성인 성녀여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용서로 찾은 기쁜 삶—이경순 (막달레나) 할머니



◇ 기도에 열중하고 있는 막달레나 할머니(中央)

하느님을 알게 된다는 것 더구나 불행한 일이 계기가 되어 하느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신앙의 빛을 받게 된다는 일은 흔치 않다. 칠순의 이막달레나(경순) 할머니(현재 인후성당소속). 그녀의 외모는 70의 나이로 보기엔 너무 젊고 활기차 보인다.

전여고를 나와 22세에 결혼, 하늘갈던 남편이 지리산 빨치대원으로 입산하여 행방불명이 되어 버린후부터 시작된 가난과 어려

움의 시간들은 말로다 할 수 없다.

남편이 물려준 유산이라고는 아들 하나뿐. 그 아들마저도 때때로 혹처럼 느껴져 고아원에 맡기려고 까지 결심도 해봤지만 번번이 눈물이 앞을 가려 되돌아서곤 했다. 근근히 샅바느질로 생활을 꾸려가는 그녀의 삶은 명문여고 출신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고 급기야는 낙동강 하류에 몸을 던지려고까지 했다. 그러던 그녀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은

그녀나이 46세 되던 해 남노송동 단칸 셋방에서 샅바느질을 하고 있던 어느날 전동성당에서 들려오던 은은한 종소리였다.

그 종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성당을 찾은 이경순 할머니는 1966년 9월 전격적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의 삶에는 별이 비쳐들고 인생의 기쁨을 되찾았다. 더우기 전여고 동창회관장일까지 맡겨지는 행운이 따랐다. 전동성당 레지오 마리에 단장직, 성당의 봉사에는 발 벗고 나섰던 그녀에게 어느 정도 삶의 여유까지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순간에 뜻밖의 불행이 찾아왔다. 힘겹게 푼푼이 모아 놓았던 뭇돈을 몽땅 잃게 된 것이다. 하늘이 무너진듯, 땅이 꺼진듯, 울분과 상심으로 망연히 성당에 앉아 있는 그녀에게 본당

레지오 단원을 위한 피정의 기회가 주어졌다.

피정때에 펼쳐든 성서구절 중 "일곱번뿐 아니라 일흔일곱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앞에서 눈을 땔 수 없었다. 그 순간 지금까지의 금전에 대한 애착, 상처를 준 이웃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다 버릴 수 있는 빛을 받았다.

이제 성모님과 예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가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새롭게 용서의 삶을 시작하겠노라 약속드릴 때,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그의 돈을 뎀 사람을 찾아가 이제 그 돈을 포기했노라고 위로의 말을 해줄 때 상대방은 감격한 나머지 서로 부어안고 눈물을 터트렸다. 그 이후로 한번도 삶에 회의를 느끼거나 누구를 원망해본일이 없다. 서울서 사는 아들며느리의 신앙에 감사드리고 넉넉치 못한 살림이지만 뭇을 쫓겨어 불우한 이웃이나 신축 성당 헌금에 익명으로 봉헌하며 그는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요십이 (843) 김병오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변산반도를 끼고 있는 부안은 예전부터 시량이 풍부했던 고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살기를 원하던 지역이다.

부안군에서도 하서면은 뒷쪽에 변산의 깊은 산을, 앞으로는 서해를 바라보는 지역에 있다. 이곳의 등용리(登用里)공소는 부안군 내에서도 유서깊은 성소 가운데 하나이다.

부안지역의 유수한 공소는 동용리 말고도 공작리(孔雀里), 만석동(萬石洞), 덕림리 등 4개곳이다.

이중 등용리공소는 현재 부안본당의 모체로서 유명한데 1918년 8월 2일 김요왕(養培-成五) 회장에 의해 설립됐다.

당시 규모는 성당20평, 사제관 8평으로 신자수는 15가구에 50여 명이었다.

설립당시 김회장은 변산(邊山)을 근거지로 삼아 불무동, 공작리, 만석동에 사는 교우들을 찾아다니다가 첫 본당인 등용리를 개척, 교우들을 모아들여 신부를



부안본당의 모체—등용리 공소

모시기위해 노력했다.

김 안드레아(大建)신부 근친인 김회장은 이곳을 처음 수류(水流)본당에 속했다가 정읍본당으로 바뀌었고 1926년에야 비로소 본당을 세우고 이야고버(基守)신부가 초대 담임으로 부임했다.

본당은 9년후 부안읍 서외리로 옮기고 등용리는 공소로 남게된다.

일제와 6·25사변으로 교난을 당해 공소와 공소촌이 일시 폐허가 됐었으나 신자 청년들이 끝까지 지켜왔으며 1972년 5월 7일엔 공소장당 60평을 짓기에 이르른다.

현재의 교세는 85세대의 3백63명의 신자가 있다. 신심단체로는 「레지오 마리에」, 남녀「쁘레시디움」이 있고 어린이와 학생들이 본당에서 파견되어 지도하고 있다.

매월 세제주일에 본당 신부님이 공소를 방문, 미사를 드려주고 지도한다.

등용공소의 문제는 다른곳과 마찬가지로 남자교우와 청소년교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공소발전엔 힘들. 지도자도 없다. 다만 공소운영으로 저축기관인 신용협동조합만이 명맥을 잇고 있다.

교구소식

1. 세계성체대회에 참석하시는 신자분들은 순정, 실린 내용을 보시고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2. 10월7일 젊은이 성찬제 참가자는 필히 주민등록증 지참할 것.
 3. 전주교구 어린이·청소년 성체대회: 일시-89년 10월1일(청소년), 10월3일(어린이) 장소-전주 실내체육관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있으시기 바랍니다.
 4. 성모의 푸른군대 피정: 10월5일(목) 덕진천주교회 강사-최용준 신부님
 5. 전주교구 사진동우회 서신동 성당 신축기금 자선 사진전시회 및 지점토 공예 전시회: 때-10월11일~15일 장소-전북예술회관 2층 제3전시실
 6. 이태리 켄 베르데 전주공연: 10월19일(목) 오후7시 실내체육관
 7. 베소라 성서개강: ①마태복음반-10월4일 수요일 오전10시 ②창세기반-10월5일 목요일 오전10시 강사-김보나 수녀 장소-가톨릭 센터 3층 율회비-3,000원
 8. 사회복지회 "사랑의 다리" 월레미사: 10월2일 오전10시30분 장소-가톨릭 사회복지회관
 9. 성모의 기사회모임: 10월7일(토) 오전10시 효자성당(젊은이의 모임은 저녁미사후)
- ※ 축! 영명 아씨의 성 프란치스코(10월4일): 김기곤 신부님 축하합니다.



홍천한의원

한 의사 송진오(바오로)

전주시 풍남동 오목대 사거리

☎ 86-9488
86-9788



- 주산
- 침구
- 혼수전문

부인주단

전주시 전통 남문앞 84-7294

한글, 한문 기초부터 개별지도 (주부반 특별편성)

명문서예학원

원장 신기정 (요새)
효자성당 앞 ☎ 82-6492

☎ 생화 · 조화 ☎

사랑공방(꽃방)


☐ 개인지도: 꽃꽂이, 공예분재, 아트플라워
실내장식: 소품, 도자기, 각종행사, 꽃꽂이주문

임영순 (가타리나)
효자성당 앞 ☎ 85-9641

성심木공업사

성구·재대·강릉대·제구장·김의자·탁상·화분대·혼례용기구 맞춤전문

서스테파노(옥봉) · 한 안나(은순)
전주 ☎ 77-1747




정신과학 세미나

주제: 고도의 정신 및 무뇌활동법

효과: 스트레스 해소, 수면조절, 신앙심화, 기억력, 집중력 증강, 타인 콘트롤법, 목표성취법,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테크닉 등.....

일시: 10월 2일(월) 오후2시, 7시
장소: 군산시 신세계 예식장
연사: 박은성(요한) 원장
문의처: 3-0881
참가비: 1,000원



일본명상

성인은 자기에게 쌓아두지 않는다. 비어서 있는 것이 없다. 이미 남을 위하여 다 썼. 간미는 쓰면 쓸수록 자기에게는 더욱더욱 있게 되고, 이미 남에게 다 주었던가는 주면 줄수록 자기에게는 더욱 더 많아진다.

노자.

명동피부과의원

성체신심이 불붙기 시작했다

군옥지구 성가경연대회
축복받은 순교자 성일을 맞이하여 제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를 기념하고 본당 성가대의 활성화와 자질 향상을 위해 지난 9월3일 둔용동성당에서 지구장 한봉섭 신부님과 각본당 신부님 많은 신자들의 관심과 열렬한 성원을 받으며 8개 본당중 5개 본당이 지성곡 1곡, 자유곡 1곡으로 제2회 군옥지구 본당별 성가경연대회를 가졌다.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초빙한 심사위원장 말씀과 같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수준높은 대회였음을 생각할 때 매우 진취적인 행사였다.

특히 올해는 제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주어 성화(聖化)에 큰 몫을 하였고 군옥지구 신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런 행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각자의 작은 힘이 모여서 큰일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본당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영예의 대상은 팔마본당이 차지했다.

성가, 이는 기도의 방편

언제인가 부터 우리교회는 개성을 위주로 한다는 미명아래 성가대의 제복부터 빛이 바래기 시

작했다. 미사 때 들리는 성가 소리는 축축차지고 어쩌다 청년미사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 이번 교구에서 실시한 가톨릭 합창단 모집에도 관심을 가져본 신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본당마다 사정은 있겠으나 성가대를 활성화시키는 일은 시급하다. 점점 쇠퇴해가는 듯한 우리 성가대를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고 또 지휘자 구하기는 하늘에 별따기... 요즈음 11월 5일은 교구에서 주최하는 본당별 성가경연대회가 열리는 날이다. 모든 본당이 참여하여 그동안 미진해온 우리의 성가대에 활력을 불어넣자.



고난의 길, 귀금속의 길
16세기 스페인의 성인 십자가의 성 요한은 「갈릴의 산길」, 「어둔밤」 등의 책을 남긴 분인데, 이분은 당시 부인들 사이에 금이나 은으로 만든 십자가나 성물이 유행하는 것에 대해 좋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언제나 거칠게 만든 십자가와 성물들을 남들 보는 데서 자랑스레 사용하곤 했다.

성물은 보이지 않는 은총을 감각으로 표현하는 성사처럼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물건이다. 그런데 요즘 전반적으로 부유해져가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성물들도 대단히 고급스러워지는 경향이다. 이왕이면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그리고 아주 예쁜(?) 고상과 목주와 미사보식으로...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은 그런 귀금속의 길이 아닌데 싶다.

열성어린 성체조배

교황님께서 1980년 봄 성체조배를 강조하신 이래로 각국에서 새로이 성체신심이 불붙기 시작했다. 그 하나가 지속적인 성체조배. 1년 365일을 한 시간도 빠짐없이 계속하는 일이니만큼 쉬운 일이 아닌데-그런데 그 어려운 일 할 수 있는 일임을, 우리교구에서는 처음으로 중앙성당이 시작되었고 효자본당에서 시작했다. 효자본당에서는 한시간씩의 신청을 받고 보니 교황님도 강조하신 새벽시간(1시부터 4시사이) 신청자가 부족하더라고.

시간이 지나면 은총의 맛을 느끼고 더욱 성과가 높을 것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성체조배가 혼자하는 일이기때문에 개인성화에만 치우치거나 공동체 의식이 무심할까 싶은 것인데 이것도 쓸데없는 걱정이 되기를...

알고 봅시다

제44차 세계성체대회기념 젠베르데 전주공연

헤폴라데(국제마리아의 사업회)운동에 소속되어 있는 국제적 여성음악 그룹인 젠 베르데 전주 공연이 확정되었다.

성체대회 문화행사를 위해 서울에 초청된 젠 베르데는 서울2회, 대구1회, 광주1회, 전주1회의 순회공연을 하게 된다. 세계를 순회하며 사랑과 일치, 평화를 전달하는 젠 베르데의 공연은 우리 지역 성체대회의 마지막 말미를 춤과 노래와 연극 무용 등으로 아름답게 장식할 것이며, 성찬의 본질인 나눔과 일치와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젠 베르데의 공연은 유럽과 미국에서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수년간 선풍적인 열기를 일으키고 있으며, 세계의 매스컴들은 이들의 공연을 앞다투어 보도하며 극

찬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즐겨 부르는 젠 노래의 근원은 바로 젠 베르데이다.

5대륙 14개국 23명의 처녀(수도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럽 전역과 미국 등지에서 20년간 1000회의 공연과 150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였고, 5개국어로 44장의 레코드를 취입했으며 TV와 라디오 방송국에도 다수 출연하였다.

어쩌면 우리 일생에 단 한번의 기회일지도 모르는 젠 베르데 전주공연에 모두를 초대한다. 비신자들과 함께 참여하여 전교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하자.

젠 베르데 전주공연의 주최는 "천주교 전주교구 성체대회 준비위원회"이며 후원은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이다.

젠베르데 전주공연

10월 19일(목) 오후7시~9시 · 전주 실내체육관

신간안내 - 새벽 빛

이석봉 지음 / 성바오로출판사 / 2,500원

수많은 만남 그중에서도 하느님과과의 만남은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재로 하여 12편의 글이 실려 있다.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노승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재 후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노인석
수녀원 82-9662

※오늘은 군인주일 : 2차헌금 있습니다.
※10월은 로사리오 성월입니다.
※어린이 성체대회 : 10월3일 8시30분 본당집결 도시락 각자 준비 *부모님동반 바랍니다.
10월8일 : 주일전체 미사없는 성체대회 참석않는 교우들은 특전 미사 참석바람. 7일특전미사 5시30분-초중고 7시30분-일반 가정방문 : 4일 9시-중노1가8,9반 미사4시 이종철씨택, 5일 9시-중노1가10반 미사3시 양덕용씨택, 6일 2시-중노1가11반 미사8시 이명례씨택
모임 : 율트레아-오늘 공식미사후 성체현시와 강복-5일 7시30분 성령기도회-5일 7시30분 반회장 모임-6일 10시30분 사목회 분과모임-6일7시30분
은인께 감사 : 성령기도회 성가책 발행위해 100,000원-익명

***서학동** 사제관 84-8307 주임신부 서석기
사무실 86-4929 사목회장 김환용
수녀원 84-2276

※10월은 로사리오 성월입니다! 성모님께 우리 간청 더러달라고 전구합니다.
※축! 영세 : 새로 태어난 주님의 어린양을! 어여뵈여기소서
1. 회의 : ①사목회-10월4일(수) 저녁미사후 ②자모회-10월4일(수) 오전10시30분
2. 모임 : 율트레아-10월5일(목) 오후8시
3. 알림 : ①성체대회 참석자는 10월8일 새벽2시30분까지 성당에 도착하여 승차표를 지참, 인솔자의 지시에 응할것. *성체대회 참석자는 모든 준비물을 지참하고, 아침,점심식사 준비하시기 바람. ②성체대회판계로 10월8일 주일미사 없으므로 성체대회 못가시는 분은 토요일 저녁미사에 참여하세요. ③가정방문-10월11일(수) 12반~13반, 10월18일(수)14반~15반 ④세계성체대회 공식성가 테이프판매-1매 2,000원 사무실에

***평화동** 사제관 85-6979 주임신부 박병준
사무실 83-8245 사목회장 김광환
수녀원 87-0229

※국가보안법을 철저히라
1. 권 데레사 수녀님 영명축하식 : 오늘 공식미사후
2. 율트레아 : 5일(목) 오후8시 3. 제대회 : 6일(금) 오전9시30분
4. 구역장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후
5. 세계성체대회 참가 : 8일 새벽2시까지 성당집결
6. 예비자 교리반 모집 : 14일(토)까지-예비자 인도봉헌을 바랍니다.
7. 형제회 : 4일(수) 오전-5,6,7,8,9반 오후-4,2,14반 5일(목) 오후-1,27,28,29반 6일(금) 오후-3,10,11,13반
8. 금주전례 : 박종구 복사-박해근 윤인홍 봉헌-임호영부부 차주전례 : 문치구 복사-권학원 한홍수 봉헌-경학범부부

***복자** 사제관 86-3453 주임신부 김기수
사무실 86-3455 사목회장 신일균
수녀원 86-3454

※10월은 로사리오 성월 : 매 평일미사 후 목주의 기도 있습니다.
1. 군인주일 2차헌금 : 오늘
2. 사목회 : 오늘 저녁미사후
3. 대건회 : 오늘 공식미사후
4. 율트레아 : 오늘 공식미사후
5. 밀알회 : 4일 오후6시30분
6. 제대회 : 5일 오전10시30분
7. 어머니성가대 월례회 : 6일 오전11시
8. 성체강복 : 7일 저녁미사후
9. 꾸리아 : 1일 오늘 오후2시
10. 세계성체대회 참가자 : 7일 저녁9:30분까지 전주역에 집결 10월8일 본당미사 없음
금주전례 : 해설-최정순 독서①안운정 ②서석남 봉헌-안운정씨 부부

***용머리** 사제관 6-2335 주임신부 조점오
사무실 87-0441 사목회장 오직환

※10월은 로사리오 성월입니다.
1. 본당 현혈의 날입니다. 현혈 하실분은 공식미사후에 참여 바랍니다.
2. 꾸리아 모임 : 공식미사후
3. 구역 반장 모임 : 10월4일 수요일 10시
4. 10월8일 : 성체대회 새벽3시에 출발합니다.
5. 예비신자 모집합니다.
6. 청소년사 : 주공3단지 동편 10월2~7일

***효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유종환
사무실 84-0915 사목회장 문대현
수녀원 84-4804

1. 서울세계성체대회 : 10월8일(일) 출발-효자 테니스장 앞 새벽3시 집결완료 02 : 40분 준비물-미사준비 도시락3개(아침,점심,저녁) *갈판 모자는 본당서 준비 행사시간 : 입장완료-08시 교황강복-09~10 : 30(각 교구순방) 10 : 30~14시 성체대회 대미사 2. 세계 성체대회를 위한 9일기도 : 9월26일~10월4일 매 미사중에 3. 청소년 성체대회 : 10월1일(일) 09 : 30 실내체육관 4. 어린이 성체대회 : 10월3일(화) 09 : 30 실내체육관 4. 감사 : 본당의 날 행사 및 본당신부영명축하 위해-영적·물질·예물과 봉헌과 봉사해 주시길 주신 교우분들께
5. 모임안내 : ①안나회-오늘11시미사후 ②구역봉사자 모임-수요일11시 ③까리파스회-금요일 10 : 30 ④성모기사회-토요일 오전10시 6. 89 부활반 예비자교리 : 목 후7 : 30(4호실) 1신자 1예비자를 인도합니다. 7. 지속적인 성체조배에 모두 참여를 8. 성당 조경나무 봉헌을 받고 있습니다.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석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유순천

※10월은 로사리오 성월 및 전교의 달입니다 : 예비자를 인도 합니다.
1. 오늘은 군인주일 : 미사중 군인들을 위한 2차헌금
2. 꾸리아 : 공식미사후
3. 사목회 월례회 : 7일(토) 저녁미사후
4. 세계성체대회 참가 : 출발-8일 새벽3시, 미사도구, 도시락 지참, 시간엄수 주일미사 없음
5. 성체강복 : 5일(목) 오전미사후
6. 어린이 성체대회 : 3일(개천절) 실내체육관 학부모님도 함께 참석합니다.
7. 금주전례 : 해설-김영신 봉헌-이창섭 이승복부부

***전동** 사제관 본당 86-5789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수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김신태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득수

1. "축" 영명 : 홍데레사 수녀님(10월1일) 갑다미안 수녀님(9월27일)-함동축하식(오늘 공식미사후)
2. 돈보스코회 : 오늘 공식미사후 3. 병자방문 : 6일(금)
4. "축" 영세자 환영 : 90명의 형제 자매가 입교하였습니다.
5. 성체강복 및 24시간 성체조배 : 5일(목) 저녁미사후-6일
6. 세계성체대회 참가자 출발시간 : 8일 새벽2시 출발(성당) 1일분 도시락 준비 7. 성심 유치원 운동회 : 10월3일(화) 전통성당
8. 본당 사무장님 부부 회갑미사 : 10월9일(월) 오전10시30분
9. 10월8일 본당 주일미사안내 : 10시30분 공식미사, 저녁7시30분 미사 10. 구역봉사자 모임 : 10월15일 저녁7시30분, 반기도회-17일~20일 11. 감사 : 성전보수헌금 서독 마인쯔한인 신자일동 100만원 감사합니다.
□ 성전보수비헌금액 : 980,000원 □ 현재모금액총액 : 65,522,000원
□ 성전보수비신입액 : 없음 □ 현재신입총액 : 184,517,150원

***효자우전** 사제관 86-3712 주임신부 박창신
사무실 86-3711 사목회장 김용무
수녀원 87-0711

1. 사목회 : 저녁미사후
2. 성체대회 : 10.1-청소년 10.3-어린이
3. 여성분과회 : 6일(금) 어머니미사후
4. 안심공소 미사 : 6일(금) 20 : 00
5. 성체대회 승차권은 오늘까지 접수마감
6. 교무금은 월별로 정성껏 봉헌합니다.
7. 율트레아 회의는 성체대회 일정으로 이달은 15일(주) 공식미사후
금주전례 : 해설-김인규 독서①김해근 ②나규순 기도-박성수 강덕자

CHRISTUS PAX NOSTRA
크리스도 우리의 평화
 44 CONVENTUS EUCHARISTICUS INTERNATIONALIS
 SEOUL 5-8 OCT. 1989

제44차 세계성체대회 대미사 참가에 따른 참고사항

행사명 : 제44차 서울 세계 성체대회 대미사
 행사 개황
 일시 : 1989. 10. 8(일)
 장소 : 여의도 광장
 참가규모 : 600,000명
 행사시간 개요
 04:00-08:00 전신자 입장완료
 08:00-09:30 미사전 행사, 사제단 입장
 09:30-10:30 교황도착, 장내 순방
 10:30-13:45 대미사
 13:45-15:30 교황 및 전신자 퇴장
 참가시 유의사항
 박장은 가능한 정장차림을 하도록 할 것
 참가시 비표와 성체대회 뱃지를 부착 할 것
 본당 인솔 책임자는 행사장까지의 인솔이 끝난후 신자들이 앉자리에, 교황의 신변 안전과 신자들의 질서유지에 노력할 것
 우선시에도 양산이나 우산은 허용치 않으며, 비닐옷을 준비하도록 할 것
 본당에서는 침부된 교구 수송 계획에 협조하여 08시까지 신자들이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도록 출발계획을 버스회사에 통보하여 차질 없도록 조치할 것

4. 참가자 유의사항
 행사 당일 장시간 옥외에서 있거나 앉아 있게 됨으로 많은 사람이 피로에 의한 실신 내지는 긴장성 두통으로 쓰러지거나 고통을 겪게 되고, 여행 중 밤늦게 또는 새벽에 먹은 음식으로 위염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여의도 대미사 참가자들에게 다음 사항을 꼭 유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1) 전주 교구는 원거리라서 새벽에 상경해야 하는 관계로 전날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할 것
- 2) 행사장 가기전 대소변을 반드시 보고 전날 음식을 절제하고, 행사장에서는 음료수나 음식을 되도록 삼가할 것
- 3) 지나치게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4) 본당단위로 구급약을 준비하시고, 인솔자는 행사장에 도착한 후에 가까운 의무실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고 환자가 생겼을 때 상황에 따라 잠시 그자리에 눕게 하거나 의무실로 안내할 것.

- 〈진행부〉
1. 수상한 행동을 하지 말 것
 2. 앞으로 나가지 말 것
 3. 소요가 있어도 중요치 말고 자기 위치를 지킬 것
 4. 퇴장시 주위 청소를 할 것
 5. 미사중 음주, 흡연, 잡담을 금할 것
 6. 자기 위치를 정확히 지키며 움직이지 말 것
 7. 영성체 후에는 반드시 앉을 것
 8. 녹지를 출입하지 말 것
 9. 유고시에는 본당 인솔자에게 알릴 것
 10. 행사장에서 교황님과 접견하는 교구는 질서있게 지켜 품위 있는 품가짐을 할 것.

- 〈전례〉
1. 본당에서 고백성사를 꼭 받을 것
 2. 공심재를 꼭 지킬 것
 3. 안내 요원들에게 적극 협조할 것

- 〈시설〉
1. 화장실 사용은 깨끗이 할 것이며 이상이 있을때에는 상황실에 연락할 것
 2. 음향이 끊기거나 이상이 생길 때는 즉시 상황실에 연락할 것

8월 1일 밤9시 뉴스 문규현 신부 북한연설 장면은 안기부의 조작이었다

지난 9월12일 교구장 직무대행 김 환철신부님께서 사목국장 김 동준 신부, 홍보국장 권 이복신부와 함께 구속중인 문 규현, 박 병준 신부의 공식 면담을 요청하고 안양 구치소를 방문하였다.

모두 건강하고 활발한 모습으로 나름대로 기쁨을 안고 살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여러 가지 많은 대화 속에서 판재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증언을 듣게 되었다. 그 중 다음 2가지 사실을 밝힌다.

첫째, 문 신부의 방북은 결코 북한의 공작이나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의 요청에 의한 행동이었다. 그럼에도 검찰측에서는 정의구현 사제단과 문 신부의 방북사건을 분리, 개인적 용공 행위로 조작하려는 듯한 인상을 짙게 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공권력의 횡포를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문 신부님은 분명히 증언하였다. "정의구현 전국 사

제단의 방북 요청은 내 개인에겐 결단 내리기 어려운 '피로운 집'이었다. 내심으로는 상관인 '하마오'주교님께서 허락하지 않기를 은근히 바랬지만, 같은 동족도 아닌 그 분이 쾌히 승락했을 때 활짝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기꺼이 이 십자가를 지기로 하였다"고.

둘째, 한 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였던 8월1일 모든 TV에 똑 같이 방영된 문 규현 신부의 북한 연설장면은 안기부의 편집 조작이었음을 증언하였다. "육성은 20여분 동안 연설중 일부만을 인정하지만 그러한 모습, 그러한 분위기로 연설한 기억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하였다.

우리는 신부와 신부, 신자와 신자 사이를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려는 정부측의 음해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되겠다. 이럴 때 일수록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야겠다.

치명자산 성지개발 봉헌에 적극참여를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동정부부 순교자 유히안과 이루갈다'의 신앙과 생활을 만세에 기리고자 우리 교당 치명자산에 지하 성당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념의 차원이거나 우리의 자랑을 크게 하자는 데 목적이 아니라 "악하고 절개 없는 이 세대"(마태12,39)에 분명한 경종을 주고 우리의 오염된 생활을 씻고 신앙의 쇄신을 위한 도

장으로 삼자는 데 뜻이 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척박한 땅이긴 해도 우리의 정성으로 해내자고 다짐하고 시작한 일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을 때가 왔습니다. 작은 정성이 합쳐하면 가능합니다. 교구 내 모든 신자들, 제 단체들, 빠짐없는 동참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숲 정 이 산책



모두 모이자!

우리 국민은 로메로 신부인가?

"미국은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는데 쓰이는 무기를 이제 더 이상 판매하지 말라!" 절규에 가까운 소리로 강론하다가 흉탄에 쓰러져 가는 로메로 신부. 그의 죽음에서 관객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투표장으로 가는 주민들이 탄 차에 총격을 가하는 군인들! 쓰레기 산더미위에 버려진 실종자의 시체! 완전히 벗겨버린채 길가에 버려진 부녀자 시신의 뒷모습! 실로 인간이 얼마나 잔악할 수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영화 「로메로」. 고문 당하는 동료 신부의 외마디 짐승소리를 옆방에서 들으며 '우리는 인간이다'라고 외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로메로 주교의 고통어린 모습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신부앞에서 보란듯이 성체를 기관총으로 박살내는 광경, 그리고 신부 머리위로 총을 난사하며 '꺼져'하고 외치는 모습, 그리고 씨익 웃는 병사의 얼굴은 총을 든 아니 일그러진 군인정신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어찌보면 군사독재자들이 엄청나게 저질렀던 광주참상을 보는 기분이었다.

'5共'하면 '청산'이란 단어가 후렴처럼 따라 다니는데 20억원을 들여 올림픽 1주년 음악분수대를 만드는 사람들. 전교조를 분쇄하기 위해 각 개부처가 작당하여 국민을 겁주지만 하는 사람들. 우리 국민들은 로메로 신부인가.

특*개원

김석주
 내과의원

진료과목 : 내과, 소아과



문의 : 전주 (토마스) / 동애 (에메렌시아)
 시 금암동 (남도주유소앞 2층)
 251-2686

축

초대합니다

전동성당
 사무장님 회갑미사

방준철 (요셀)
 고명순 (아네스)

1989. 10. 19 오전 10시 30분
 장소 : 전동천주교회

주 : 방성일 / 의성신부 / 성운, 성수

젊음과 지성의 센스—
 ●아메리칸 캐주얼
HANG TEN
 〈행텐〉

전주점 오픈

관동로 전주백화점 중간
 84-4094
 김용왕/채글라라

유럽·이스라엘

성지순례 전문여행사

7차출발 : 90년 1월 5일 (17박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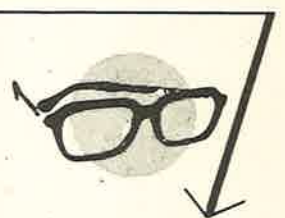
파리-루르드-리옹-스위스-밀라노-아시씨-로마-바티칸-이스라엘-이집트-방콕



전일관광

조선 (안토니오)
 6-6666~8

믿음과 정성을 다하는



광명안경원

박종락 (조화서 베드로)
 안화동 (프리스가)
 전주오거리 (신)서강정형외과 앞
 (구)나정형외과

74-1123.3-6709